

## KIA, 선발 정상화로 정상 탈환한다

###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호랑이 군단’이 1위 탈환을 위해 발톱을 다시 세운다. KIA 타이거즈가 SSG 랜더스·KT 위즈를 상대로 원정 6연전을 치른다.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를 상대한 지난주 KIA는 2승 4패를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LG 트윈스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시작부터 험난했다. 4일 롯데 선발 애런 윌커슨에게 9회까지 단 1점도 뽑지 못한 KIA는 사사구도 얻어내지 못하면서 ‘무사사구 완봉승’의 제목이 됐다. 5일에는 ‘주장’ 나성범의 속스러운 수비 실수 등이 나오면서 기싸움에서 밀렸다. 6일에는 스윙패를 막는 내야진들의 홈런쇼가 펼쳐졌다. 박찬호가 1회말 선두타자 홈런을 장식했고, 김선빈과 김도영은 6회와 8회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투런포와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특히 김선빈은 8회 결승타까지 장식하면서 5-4 승리의 주역이 됐다. 어렵게 1위는 지켰지만 잠실에서의 성적도 좋지 못했다. 7일 연장 11회 승부 끝에 밀어내기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하면서 5-6의 쓴 끝내기 패배를 당했다. KIA는 이날 패배로 4월 9일부터 지켜왔던 1위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캡 알레드리가 KBO 데뷔전에 나선 8일에는 5-

지난주 ‘2승4패’ 59일만에 1위 내줘…0.5게임차 SSG·KT와 원정 6연전…황동하 시즌 3승 도전 ‘뜨거운 남자’ 김도영·최형우 최다루타 달성 관심

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8-9 역전패를 당했다. 9일 나성범의 3타점 활약과 최원준의 3점포로 8-2 승리를 거둔 KIA는 스윙패 위기를 넘고 2위는 지켰다. KIA는 승차 없이 쫓아왔던 두산 1경기 차로 밀어냈고, LG는 0.5경기 차로 압박하고 있다. 이길 수 있던 경기들을 내주고 2위로 내려선 KIA는 새로 틀을 갖춘 선발진과 뜨거운 타자 김도영을 앞세워 1위 탈환에 나선다. 알레드리가 데뷔전에서 3이닝 6실점의 아쉬운 성적을 남겼지만, 위력적인 변속구와 구위를 선보이면서 비어있던 선발 한 자리를 채웠다. 이의리, 윌 크로우의 부상으로 기회를 얻었던 황동하가 앞선 등판에서도 5회를 책임지는 등 확실한 선발로 역할을 하면서 KIA의 새로운 선발 로테이션이 완성됐다. 운영철도 9일 등판에서 위기를 넘고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3월 31일 두산전 이후 처음 무실점 경기를 펼친 운영철은 5승을 수확했다. ‘선발 정상화’가 우승에 도전하는 KIA의 최우선 과제다. 부상 약재 속 선발진의 부족했던 이닝은 불펜진에 영향을 미쳤다. 곤경했던 불펜진이 흔들리면서 KIA 타자들도 끝까지 가는 승부를 하면서 체력적

인 부담이 더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새로 짜인 선발진이 ‘이닝’이 키워드가 될 한 주. 변수 많은 마운드의 안정화를 도울 화력도 필요하다. 김도영이 화력 싸움 전면에서 선다. 지난주 김도영은 23타수 13안타의 맹타를 휘두르면서 0.565로 주간 타율 1위에 랭크됐다. 2개의 2루타와 함께 2개의 홈런도 기록하면서 뜨거운 한 주를 보냈다. 좋은 흐름 속 ‘감세’를 보였던 문학구장을 찾은 만큼 김도영이 만들어낼 성적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다. 주말 두산 원정에서 감을 끌어올린 ‘베테랑’ 최형우의 새 기록도 준비된다. 최형우는 9일 경기에서 안타를 추가하면서 통산 4072루타를 기록하고 있다. 이승엽 두산 감독이 보유한 최다루타(4077루타) 기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형우가 기록과 함께 팀의 승리를 동시에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11일 경기에서는 황동하가 선발로 나서 시즌 3승을 노린다. SSG에서는 5월 10일 KIA를 상대로 KBO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드류 앤더슨이 선발로 출격해 개인 3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황동하가 11일 SSG와의 원정 경기 선발로 나서 1위 탈환에 앞장 선다. <KIA 타이거즈 제공>

### KIA 정해영, 올스타 중간 투표 1위

양현종 등 10명도 부문별 선두



세이브 공동 1위인 KIA 타이거즈 마무리 정해영(사진)이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 2차 중간 집계에서 득표 1위를 차지했다. 나눔 올스타 후보인 정해영은 9일 오후 5시 기준 2차 중간집계 결과 101만 2173표를 받으면서 1차 중간 집계 1위인 드림 올스타 두산 양의지(100만 6042표)를 6131표 차로 따돌렸다. 올 시즌 18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삼성 오승환과 세이브 부문 공동 1위인 정해영은 2022년에 이어 2번째 베스트 12에 도전하고, 양의지는 8번째 선정을 노리고 있다. ‘고졸투구’ 두산 감독은 98만 5690표를 획득하면서 드림 올스타 중간투수 부문 1위, 전체 3위에 자리했다. 나눔 올스타 투표에서는 KIA의 강세가 이어지

고 있다. 1차 중간 집계와 마찬가지로 KIA는 2루수 부문과 외야수 부문 한자리를 제외하고 양현종(선발투수), 전상현(중간투수), 정해영(마무리), 김태균(포수), 이우성(1루수), 김도영(3루수), 박찬호(유격수), 소크라테스·나성범(이상 외야수), 최형우(지명타자) 등 10명이 1위를 장식하고 있다. 2루수 부문 1위는 키움 김혜성, 외야수 남은 한 자리는 한화 페라자가 차지했다. 외야에서 가장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74만 5345표로 외야수 3위에 올랐고, 키움 도슨이 71만 9134표를 얻으면서 2만 6211표 차로 추격하고 있다. 드림 올스타에서는 삼성이 1차 집계와 마찬가

지로 6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3년 만에 올스타전 선발을 노리는 원태인과 지명타자 부문에서 베스트12를 노리는 구자욱을 포함해 맥키닌(1루수), 류지혁(2루수), 김영호(3루수), 이재현(유격수)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98경기에서 만원 관중을 동원하는 등 10개 구단 체제 이후 최다 매진 신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는 KBO의 열기는 올스타투표로 이어지고 있다. 2차 중간집계 결과 총 투표수는 234만 1719표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2차 중간 집계(175만 1114표) 대비 약 34% 증가할 수 있다. ‘별들의 잔치’에 오를 베스트12를 선정하는 팬 투표는 16일 오후 2시까지 계속된다. 최종 명단은 팬 투표(70%)와 선수단 투표(30%) 결과를 합산해 17일 발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LPGA 시즌 첫 승 또 무산

솔라이트 클래식 만나린 6위·신지는 9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이 2024시즌 14번째 대회인 솔라이트 LPGA 클래식에서도 우승컵 없이 돌아왔다. 10일 미국 뉴저지주 글러웨이의 시부 베이코스(파71)에서 끝난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로 접어들고 만나린은 10언더파 203타로 공동 6위에 올라 한국 선수 중 가장 성적이 좋았다.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신지는 1타를 잃고 공동 9위(9언더파 204타)로 대회를 마쳤다. 고진영과 이정은은 8언더파 205타로 공동 12위

에 올랐다. 한국 선수들이 LPGA 투어에서 우승 가망이 길었던 최근 시즌은 2014년이였다. 당시 박인비가 14번째 대회인 매뉴얼리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우승해 가망을 해소했다. 1998년 박세리가 시즌 14번째 대회에서 첫 승을 올린 뒤 1999년에는 19번째 대회, 2000년 16번째 대회, 2008년 14번째 대회에서 한국 선수 시즌 첫 승이 나온 적이 있다. 2024시즌에는 14번째 대회까지 우승이 없어 한국 선수들은 1998년 이후 세

번째로 긴 우승 가망을 보내게 됐다. 우승컵은 마지막 날 무려 11타를 줄여 기적 같은 역전극을 펼친 린네아 스트림(스웨덴)에게 돌아갔다. 2라운드로서 컷에 턱걸이했던 스트림은 3라운드로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9개를 잡아 LPGA 투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타수인 60타를 적어냈다. 이는 LPGA 역대 우승자의 마지막 라운드 스코어 중 가장 낮은 타수다. 이전 기록은 한국의 박인비가 2014년 매뉴얼리프 파이낸셜 대회 마지막 라운드 때 세운 61타였다. 역대 18회 최저타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2001년 스탠더드 레지스터 핑 대회 2라운드 때 기록한 59타다. 스트림은 2019년 LPGA 투어 데뷔 이후 첫 우승을 차지하며 우승 상금 26만2500 달러(약 3억 6000만원)를 받았다. /연합뉴스

### 임성재 “파리올림픽 양보 못해”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8위 2개 대회 연속 ‘톱10’ 진입

어 2개 대회 연속 상위권 입상이다. 세계랭킹 32위 임성재는 파리 올림픽 출전 순위에서 김주형(22위), 안병훈(26위)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 2명에 끼려면 임성재에게 남은 기회는 이제 US오픈과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단 2개 대회다. 안병훈은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공동 22위(4오버파 292타), 김주형은 공동 43위(9오버파 297타)에 그쳤다.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4라운드 함께 8언더파 280타를 적어내 시즌 5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셰플러는 2오버파 74타를 쳐 1타를 줄이면서 추

격한 콜린 모리카와(미국)를 1타차로 제쳤다. 지난 4월 22일 RBC 헤리티지 제패 이후 두 달만의 우승이다. PGA 투어에서 시즌 5승은 2016-2017시즌 저스틴 토머스(미국) 이후 7년 만이다. 우승 상금 400만 달러를 보낸 셰플러는 시즌 상금이 2402만 달러로 불어나 작년 자신이 세웠던 시즌 최다 상금 기록(2101만 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4타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섰지만 모리카와의 끈질긴 추격에 흔들렸던 셰플러는 17번 홀(파4)에서 이날 세 번째 보기를 적어내 모리카와에게 1타차로 쫓겼다. 셰플러는 18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넘어간 뒤 세 번째 샷이 홀에 미치지 못해 위기를 맞았지만, 1.2m 퍼퍼트를 집어넣어 우승을 확정했다. 애덤 헤드윈(캐나다)이 4언더파 284타로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남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 해남군청 구영모



여자 에페 개인전 금 광주서구청 최은숙(왼쪽)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우승한 전남도청 선수단

### 광주·전남 검객들 ‘금빛 활약’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

광주·전남 검객들이 ‘제62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빛 활약을 펼쳤다. 해남군청 구영모와 전남도청 선수단은 각각 남자 에페 개인전과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는 광주서구청 최은숙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남자 일반부 에페 개인전에서 해남군청 구영모는 16강에서 김준준(익산시청)을 상대로 12-11, 1점 차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한 뒤 정세운(국군체육부대)에게 15-9로 승리했다. 준결승에서 광주서구청 김상진을 만나 15-9로 이긴 구영모는 결승에서 장호민(울산시청)을 15-8로 꺾으며 정상에 올랐다. 김상진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일반부 에페 단체전에서는 해남군청 구영모·황태현·권오민·김승재가 동메달을 합작했다. 여자부에서의 활약도 이어졌다.

전남도청은 여자 일반부 에페 단체전 1위에 올랐다. 광주서구청은 2위에 자리했다. 전남도청 박소형·유단우·김태희·김향은은 단체전 8강서 충북도청(김수빈·나은미·이지희)을 45-32로 꺾은 뒤 준결승에서 부산시청(박진주·김가은·송세희·송세라)에 45-35승을 거뒀다. 이어 결승에서 광주서구청(노선경·최은숙·강영미·허다정)과 대결을 펼친 전남도청은 45-34 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서구청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는 광주서구청 최은숙이 금메달을, 전남도청 김태희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8강에서 고예인(계룡시청)을 15-8로 꺾은 최은숙은 준결승에서 전남도청 김향은에 15-11승을 거뒀다. 결승에서 김태희를 마주한 최은숙은 15-10 승리를 거두고 1위를 기록했다. 김시은과 김향은은 공동 3위에 올랐다. 한편, 충북 제천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달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간 열렸다. /김진아 기자 jingg@kwangju.co.kr